



[금융] KEB하나은행 벤처·스타트업에 5000억 투자 04



Life

[헬스·바이오] SK바이오팜·美‘투자자’ 비서세포페암 신약개발 공동연구 L2



# 서울시, 지방세 도입 100년... ‘스마트폰 납부시대’ 연다

##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단계적 도입 年 최소 27억원 송달비 절감 효과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스마트서울세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시는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동이체·납부기한 등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 TAX)을 설치할 수 있는 URL도 함께

전송한다. 단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9억원(2만 8000건)에 달한다고 시는 전했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

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는 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압박 안내는 7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는 7월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원의 송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전송 비용은 건당 165원이다. 일반 우편보다 50%(건당 330원), 등기보다 92%(건당 1950원) 더 저렴하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있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되면 더 많은 시민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세금 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전자정부

선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내 치과병원 신설 서초대로, 40년 만에 완전 연결된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지하철 9호선 연결통로 새롭게 조성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부지 내에 치과병원이 들어선다. 또 진료실과 수술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신관동이 증축되고, 지하철 9호선 연결통로도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노령화에 따른 치과 진료 수요를 반영하겠다”며 “휠체어 이용 환자들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어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



중앙보훈병원 내 신축되는 치과병동 조감도.

/서울시

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하철8호

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송파대로 확장을 위해 송파대교 3·4번 출구가 옮겨지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한편 이날 시 도계위는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김현정 기자

## 내방-서초역 연결 ‘서리풀터널’ 개통 남부순환로 등 주변 혼잡도 개선될 것

서울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2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단절된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서초대로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k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서리풀터널’(총연장 1.28km)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간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015년 국군정보사 이전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뜬지 3년 5개월 만이다. 사업비로는 총 1506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25~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 시간이 5~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도도 크게 개선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높아져 강남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간 189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3시 서초구 내방역측 터널 입구에서 ‘서리풀터널 개통식’을 연다.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사업장 방지시설 효과 ‘톡톡’... 미세먼지 47%↓

## 79개 사업장 대상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려 47.1%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교체 개선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해 79개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도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지시설 개선 전과 후의 미세먼지 배출 측정량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방지시설 개선 전 48.6톤/년에 달했던 79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개선 이후 25.7톤/년으로 감소, 47.1%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에 있는 A합판업체의 경우 1톤/년에 달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노후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이후 0.3톤/년으로 감소해 무려 70%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50%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 수준까지 높였다.

아울러 도는 올해 추경 예산과 국비 추가 반영 요청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소규모사업장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방지시설 교체,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80%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광교신청사 2020년말 준공 목표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광교신청사 공사가 공정률 21.5%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신청사 본청은 전체 지상 22층 가운데 지상 4층까지, 경기도의회 건물은 지상 12층 가운데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도는 올 연말까지 공정률 56%를 목표

로 골조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내부 마감과 주요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PSHA 18001)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합동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